

고속도로 나들목, 농로 연결 ‘주민 반발’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남나주 나들목 진입도로 설치 주체 ‘말썽’
도로공사 “나들목 연결도로는 지자체 관할도로, 나주시가 정비해야”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남나주(나주 봉황면) 나들목 연결도로. 멀리 비좁은 농로가 보인다.

“도로폭이 좁아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농로를 겸한 시골도로에 고속도로 나들목을 연결하면 앞으로 어떻게 다니라는 겁니까.”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나들목이 농로를 포함한 접속도로와 연결되지만 도로정비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문제의 나들목 접속도로 설치 갈등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5공구 나주 봉황면

공사 구간에서 빚어지고 있다.

총 연장 88.61km인 해당 고속도로는 오는 2024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 한창이다.

20일 나주시 봉황면 주민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개설 공사를 앞두고 지난 2016년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남나주(봉황면) 나들목 설치 시 기존 면(면)도 211호선 확·포장과 인도 설치 등을 건의했지만 최종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에서 나주시를 통과하는 18km 구간 중 봉황면이 가장 많은 11km(60%)를 차지하고, 향후 하루 1800여대의 차량이 나들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설치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농로가 포함된 ‘연결도로 4km’에 대해 확·포장 정비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나들목 설치까지는 공사의 책임 시공 영역이지만, 연결도로는 당초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로라는 점에서 나주시가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조만간 공문으로 남나주 나들목 접속도로 확·포장 정비와 관련된 이러한 입장을 나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동나주(산포면) 나들목의 경우 도로공사 측에서 연결도로까지 시공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남나주 나들목도 형평성을 고려해 연결도로 정비를 건의했지만 아직 뚜렷한 입장을 회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원 중재에 나선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선거구)은 “나들목 설치를

확정했다면 접속도로 또한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속도로 준공 전까지 도로공사와 나주시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결도로 정비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남나주(봉황면) 나들목은 당초 계획에는 나주시를 경유하는 국가지원도로 55호선 우회도로와 연결해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나주 봉황면 주민들이 제기한 ‘면 소재지에서 곧바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나들목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여 현재 위치로 변경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나들목 설치 위치까지 변경했는데, 연결도로 정비까지 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민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설치와 도로 확포장 정비를 건의한 양재식 나주 봉황면 이장단장은 “봉황면 일대의 상당한 농경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돼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큰 만큼 도로공사 측에서 전향적으로 연결도로 정비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주 봉황면 주민들은 나들목 명칭의 경우도, 현재 남나주 나들목에서 나주 봉황 나들목으로 변경해 주길 바라고 있다.



담양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군민의 뚝돌한 안전지킴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취약가구 112가구를 방문하여 1천여 건의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남부소방, 한국119청소년단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 방문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15일 한국119청소년단인 백운초등학교 학생 20명이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 재난 대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드론장비 활용한 상황통제 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관내 대표적 교통 혼잡구역인 남광주역 사거리에서 차량 6대, 인원 16명과 드론을 활용한 상황통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소방,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심폐소생술 교육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화순군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을 실시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강진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임원 간담회 통해 협력치안방안 논의

강진경찰서(총경 박승기)는 지난 14일 경찰발전협의회(김영배 회장) 임원 및 경찰서 지휘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협의회 신임 집행부 위촉식 및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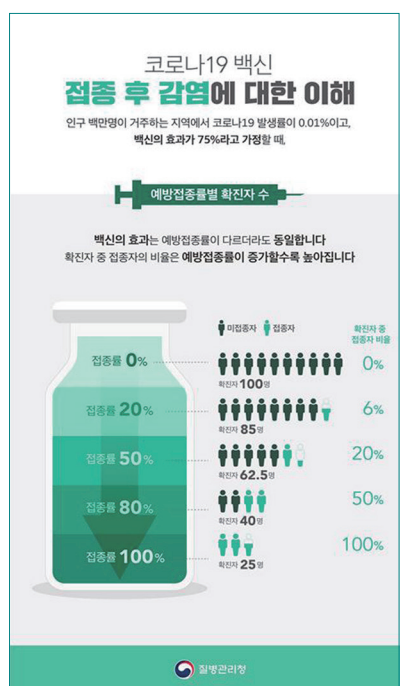


완도해경, 2021년 최우수 사격 경찰관 선발·격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021년 상·하반기 권총 사격 성적우수자를 선정해 현장에 강한 경찰관 양성과 우수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장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위중증 환자 분석, “백신 한번도 안맞았다” 65%



질병관리청은 13일 코로나19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돌파감염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최근 약 두 달 간 코로나19 확진자 절반 이상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 후 위중증 또는 사망한 환자 중 3분의 2는 미접종자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월1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만 18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9만2190명 중 4만8576명(52.7%)이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만9035명(31.5%)은 백신을 접종했다더라도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불완전접종, 1만4579명(15.8%)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 돌파감염이 일어난 사례였다.

같은 기간 위중증으로 이어진 확진자 중 약 66%는 미접종자로, 위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 1612명 중 1059명(65.7%)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37명(20.9%)은 불완전 접종, 216명(13.4%)은 돌파감염이

었다.

이 기간 사망자는 270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177명(65.8%)이 접종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았다. 43명(15.9%)은 불완전 접종, 50명은 완전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례였다.

8월 말부터 18~49세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9월26일부터 10월9일까지 2주간은 확진자 중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의 확진 비중이 늘어났다.

이 기간 전체 확진자 2만5725명 중 9878명(38.4%)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례였다. 이 중 8214명(83.2%)이 18~49세 연령대였다. 불완전접종 사례는 9421명(36.6%), 완전접종 후 돌파감염 사례는 6426명(25%)으로 나타났다. 돌파감염 사례 중 3655명(56.9%)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10월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217명이다. 미접종자는 141명(65%), 1차 접종자 22명(10.1%), 2차 접종자는 54명(24.9%)으로 파악됐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0일 기준 접종완료자 2317만4126명 중 1만6972명(0.073%)이다.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월별 돌파감염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7월 1180명으로 처음 네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8월 2764명, 9월 8911명으로 집계됐다. 10월 들어서는 지금까지 3992명이 돌파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0.14%로 발생률이 가장 높다.

백신 종류별로는 안센 백신의 돌파감염 발생률이 0.2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0.085%, 화이자 0.05%, 모더나 0.006% 순으로 나타났다.

1차와 2차에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한 교차접종자 중 돌파감염 발생률은 0.062%였다. 돌파감염 추정사례 중 위중증으로 이어진 경우는 253명, 사망자는 65명이다.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마친 돌파감염 사례 3425명 중 3196명(93.3%)은 델타 변이 등 주요 변이로 나타났다.

서선욱기자

중국산 소금, 국산 ‘천일염’ 속인 판 업자 무더기 검거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불법유통한 소금 도매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무안경찰서는 20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재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소금 도매업체 대표 A씨 부부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공단지의 민참고를 임대해 중국산 소금 260t을 매입한 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해남 일대 염전과 절민 배추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국내에서 천일염으로 손꼽히는 신안천일

염과 해남꽃소금 등의 포장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압수한 중국산 소금만도 120t으로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시중에 유통시킨 중국산 소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 중이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식품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라며 “감장철을 앞두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선박·건설현장 외국인 확진자 속출 ‘선제검사·접종’ 독려

전남지역 1주일 간 외국인 확진자 37명

전남도가 20일 최근 선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선제 검사와 예방접종 동점을 요청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 간 외국인 확진자는 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외국인 확진자 비율(20%)보다 9%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발생 장소는 연·근해어선 18명(48%), 건설현장 7명(19%) 순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연근해어선 선원, 직업소개소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선원 감염은 검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출항함으로써 선박 내 밀집 환경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속출했다.

또 외국인 확진자의 절반이 미접종자로 확인됐다. 전남 외국인 접종률은 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가 아직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연근해 어선, 직업소개소 등 집단검사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커뮤니티,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미등록외국인 등의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달 말까지 안정적 방역상황을 만들고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 초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사업장·선박 등 2주 1회 PCR검사 대상자는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 등 중사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방 접종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